꿩대신 닭… 사모펀드 대신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공모펀드 규모 1년새 4.8% 줄어
사모펀드는 15.5% 꾸준히 유입

최소 가입액 500만원으로 줄여
위험요인 감지땐 리밸런싱 진행

사모펀드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함께 여러개의 헤지펀드(사모펀드)를 담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사모·공모 펀드 시장을 모두 키우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공모펀드 규모는 1년 전보다 4.8% 줄어든 238조838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사모펀드 규모가 15.5%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해당 유형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은 1년 동안 1354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고,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도 같은 기간 85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 최소 가입금액 500만원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공모펀드를 인가하면서 등장했다. 그동안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모펀드에 소액으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7년 9월에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였고 이후 삼성자산운용, 신한BNPP자산운용에 이어 올해는 KB자산운용까지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내놨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부터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인기는 높아졌다. 펀드 안에 여러개의 헤지펀드를 담고 있어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재간접펀드(Fund of Fund) 운용팀장은 "편입펀드는 집중도를 높이고 펀드는 롱숏, 채권차익거래, 메자닌, 이벤트 드리븐 등으로 다변화해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펀드의 위험요인이 감지되거나 전략배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리밸런싱(재구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1년간 코스피(KOSPI)지수가 14.21% 하락한 반면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1'은 오히려 0.20% 수익을 냈다. 지난해 9월 설정된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 역시 최근 3개월간 2.18%의 수익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활성화가 공모펀드, 사모펀드 시장 모두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은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 구성에 애를 먹었던 사모펀드에도 재간접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펀드 조성이 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히려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찾아와 투자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최소 투자금액 50억원의 사모펀드에도 투자해 공모펀드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 역시 "연초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듯 하나 미국 경기의 고점 통과 가능성, 여전히 산재한 미중 무역분쟁 이슈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도 중위험중수익 펀드에 대한 니즈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10억 이상 사모재간접형공모펀드 수익률(2019년 2월1일 기준)〉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3개월	연초이후	1년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I	미래에셋	2017-09-27	367.75	396.6	1.36	1.02	0.2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Cf	삼성	2017-12-18	173.25	169.78	1.72	0.98	-4.16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s)	신한BNPP	2018-09-04	86.97	86.44	2.18	0.94	
KB헤지펀드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C-F	KB	2019-01-25	50	49.96			

/자료=에프앤가이드(FnSpectrum)

증권 다이제스트

키움증권

'키움에서 캐치하라' 이벤트

키움증권은 신규서비스 캐치(KATCH) 오픈 기념으로 '키움에서 캐치하라' 이벤트를 오는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웅문4(HTS)에서 캐치(KATCH) 전용계좌를 개설한 고객 총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 캐치(KATCH) 서비스를 통해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총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키움 캐치(KATCH) 서비스는 고객이 스스로 조건검색을 통해 종목을 발굴하고, 원하는 규칙에 따라 매수·매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손엄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연 6% ELS 50억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675호'는 홍콩항셍지수(HSI) 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지수, 니케이225(NI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12·18·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연 6.0%)의 수익을 지급한다. /손엄지 기자

교보증권

'항셍주간 불패왕'에 상금

교보증권은 오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항셍불패 시즌1' 실전투자리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홍콩거래소(HKFE) 홍콩항셍지수와 미니 항셍지수 상품을 거래해 주간 및 최다 수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주일(월~금) 동안 매일 홍콩달러(HKD) 2000달러 이상 수익을 낸 고객 중 최다 수익자 1명을 선정해 '항셍주간 불패왕' 상패와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종료일까지 최다기간 수익을 낸 고객에게 '항셍 불패왕'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수상이 가능하며 1인 최대 상금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손엄지 기자

LG·한진칼이 금융업?… 지주사 업종분류 손본다

거래소, 분류체계 현실과 동떨어져
58곳 중 48곳 주력사업 맞춰 변경

LG, 넥센, 풀무원, 한진칼,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지주 등이 금융업종에서 빠져 운수장비·의약품·화학·식음료품 등과 같은 주력업종으로 분류된다.

한국거래소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장사의 지주회사 업종분류 체계를 개선하고자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분류 기준은 두 가지가 쓰인다. 코스피 200 등 지수는 글로벌산업분류(GICS)를 토대로 업종을 분류하고 산업별 지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른다.

이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비금융 지주회사를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실제 사업 내용으로는 금융업으로 보기 힘든 일반 지주회사들이 산업별 지수상 금융업종에 들어가게 됐다.

거래소의 이번 개정 세칙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상 특정 산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주회사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특정 산업 비중이 50% 미만인 지주회사는 종전 처럼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체 산업 분포 및 전망 등을 고려해 업종 분류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종 심사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된 지주회사 58개사 중 48개사가 현재의 주력 사업에 맞춰 운수장비·의약품·화학·식음료품 등 업종으로 변경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현재의 업종분류와 투자자 인식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4월 업종 심사 시 개정 세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

이달 아파트 1.2만가구 분양 '대단지' 주목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 수도권
4년 평균 7944가구보다 많아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2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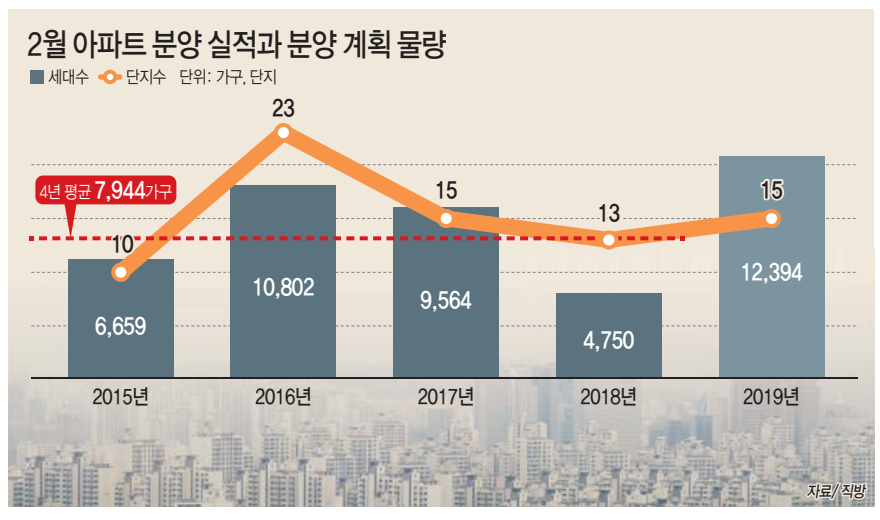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수도권 분양과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15개 단지, 총 1만4680가구 중 1만2394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2월 분양물량은 평균 15개 단지, 7944가구다. 올 2월에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15개로 예년과 비슷하다. 다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가구 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에 분양되는 15개 아파트 단지 중 10개 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 '홍제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가 공급된다. 이들 모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로 기존 노후주거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경기에서는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 '평촌래미안푸르지오', '평택뉴비전엘크루'가 각각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센트럴푸르지오'와 주상복합아파트인 '부평지웰에스테이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강원도 원주와 충청남도 아산에서 대규모 단지 분양이 계획돼 있다.

직방 임일해 매니저는 "지난해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의 주수요층이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됐다"며 "합리적 분양가와 중소형 평면의 선호 속에서 역세권 대단지들의 2월 청약성적표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해외 장내파생상품서 개인투자자, 매년손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장내파생투자가 늘고 있지만 매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작년 1분기 1520만 계약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자 수는 4만3612명이며, 이 중 대부분인 93.6%가 개인투자자다.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대비 해외시장 거래량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개인투자자 거래량의 4.4% 수준으로 2013년 1.8%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2017년 기준 개인투자자 1인당 거래금액은 3877만8000달러로, 한화 약 436억원을 웃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